

정화의 작은이들



새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50 호

10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10 월 31 일

하반기 캠페인 주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Projector (사부님 추도식)
- 오전 10 시 10 분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후 1 시 - 친교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11/28 (토), St. Bonaventure Church (1300 Leslie St.)에서 오전 9 시 미사로 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편이 없으신 회원은 오전 8 시 20 분까지 한맘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지난 10/3 (토), St. Peter's Church 에서 거행된 사부님 추도식에 우리 형제회에서 23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날의 형제회로 발전하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하신 길우배, 이규일 형제님과 김영정 자매님이 금년에 종신 서약 20 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 달 11/16 (월), 강희백(도미니코) 형제님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성 어거스틴 세미너리에서 졸업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회원과 E-Mail 주소가 있는 회원은 부회장에게 전화(905-607-8302) 또는 이메일 (andrewoh54@hotmail.com)로 꼭 연락,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김문자(세실리아) 자매의 막내 따님(김서영 아네스)이 지난 10/26(월), St. Joseph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조속한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는 회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연로 회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부님 영성의 향기 (15)

‘용감한 프란치스칸’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1219 년 9 월에 이집트의 다미에타에 가서 이슬람의 술탄 멜렉 엘 카멜을 만나 개종을 종용하며)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마호멧 율법을 포기하기가 두렵다면 큰 불을 지피시오. 그러면 내가 불 속에 당신의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리다. 그것이 어느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더욱 거룩한가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요.” (대전기 제 9 장 8 에서 발췌)

몇 년 전, 아씨시 성지순례 때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벽화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대로 사부님이 술탄에게 제안하자 제사장들이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도망치는 모습의 그림이었는데 보면서 웃음이 나오고, 프란치스코 사부님의 열성과 용기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프란치스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뚫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개종에는 실패하였으나 사부님의 열성과 용기에 반한 술탄과는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탄의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고, 그 후로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술탄의 점령지인 예루살렘 성지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었지요. 사부님의 순교에 대한 열정과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직 교황청의 공인은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순례를 다녀와 성화가 되고, 이탈리아 성령쇄신 봉사회 전국위원 구마 사제로 유명한 ‘폴 비오’ 신부님도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하신 ‘메추고리에’를 현재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이 관할하고 있는데, 성모님 발현 초기에 관할했던 모스타르 교구는 회교도들과 공산당들에 의해 박해를 받을 때 마을을 떠났지만 프란치스코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마을을 지켰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돈독한 신뢰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스타르 교구 소속 사제가 다시 ‘메추고리에’와 주변 본당에 다시 파견될 수 있도록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5년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 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 프란치스코들에게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배 프란치스코들이 보여준 확고한 믿음과 용감한 행동을 본받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겠습니다.

회계 보고

2009년 9월 30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7,940.99	869.35	454.65	8,355.69
선교 후원금	6,509.28	295.00	0.00	6,804.28
도서 구입	1,868.42	0.00	0.00	1,868.42

가을, 감사와 사랑의 계절

유기서약반 백영숙 소피아

어느 새 가을이다. 올 가을은 유난히 단풍이 곱고 햇살이 아름다워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고운 단풍 빛깔에 눈이 부시다. 물 한번 준 적 없고 상냥한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던 길가의 나무들이, 들판의 꽃들이, 지저귀는 새들이 나의 눈을 즐겁게 하고 찢푸렸던 마음에 행복을 샘솟게 한다. 참으로 절로 감사

하게 하는 계절이다. 가을의 수식어는 참으로 많기도 하지만 감사란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속의 주인공들처럼 가을 들판에 서서 저녁 종소리에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하고 싶은 계절이다.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심을, 새날을 허락하심을, 건강함을 주심을,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을, 매일 매일 새로운 기쁨과 평화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말이다. 이 계절이 아름다운 것은 비단 색채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니다. 기나 긴 겨울로 사라지기 전,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고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자연의 질서가 주는 그 숭고함의 무게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가을엔 생각이 많아진다. 특히 잊었던 기억들이 문득 문득 생각난다. 잊혀졌던 사람들, 노래들, 장소들... 오래된 기억들은 물살에 깔리고 다듬어져 동그래지는 자갈돌처럼 선한 기억으로 남아 더욱 가슴을 아련하게 한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정겨웠던 그 시절 속에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들도 많았었는데 내가 정작 그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는지, 사랑한다는 말은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내 기억의 몇 십년을 거슬러 올라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전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에게 나는 고맙다고 말해 왔던가? 네가 내 아들(딸)이어서 행복하고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고맙다는 말은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일지도 모르겠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 하나로 충분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어떤 것이 고마운지에 대해 얘기해 주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마음을 전하는 일은 섬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이다. 서로의 마음 문을 더욱 활짝 열게 해서 진심이 통할 수 있으니 말이다. 가을엔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을 보며 용기를 내고 싶다. 남편과 아이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차마 속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용기내어 하고 싶다. 그리고 마음 속에 묻어 두었던 서운하고 웅크렸던 마음들도 훌훌 털어버리고 그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고 푸른 하늘같은 마음을 갖고 싶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지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을 힘나게 하고 살맛나게 한다. 이 가을, 감사하기에 좋고 사랑하기에 좋은 이 계절에, 가까이 있어서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눈에서 멀어 마음까지 멀어진 사람들에게 추기경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기고 가신 이 말을 기쁨 가득 담아 해주어야겠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